

2010.03.29 미래정책연구실

□ Agrigento Korea – 첨단농업 부국의 길

- Agrigento는 기원전 6세기 경 그리스가 이탈리아 시칠리아섬에 건설한 고대 도시로, 첨단 농업기술과 개간기법을 도입해 막대한 부를 축적하였음. 21세기 우리나라도 당시 아그리젠토처럼 농업에서 새로운 부를 창출해 아시아의 주도국이 되자는 의미를 담고 있음.
- 19세기 영국의 윤작법 확산, 20세기 미국의 다수확 품종 개발에 이어 21세기 농업 혁명을 주도할 국가는 아직 미지수이므로, 우리나라도 그 주인공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음.

□ 글로벌 농업전쟁

- 농업은 선진국의 새로운 비전입니다
 - 미국 오바마 대통령 “농업은 도전을 겪는 동시에 막대한 경제적 기회 앞에 서 있다.”
 - 프랑스 사르코지 대통령 “ 농업은 나노공학, 우주산업처럼 미래를 여는 열쇠다.”
 - 일본 하토야마 총리 “농업을 부활시켜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자.”
- 뉴 테크놀로지 경쟁 치열합니다
 - 미국, 캐나다 등은 도심 빌딩형 농장인 ‘버티컬 팜(Vertical Farm)’ 건설을 추진 중
 - 일본은 이미 50개소의 식물공장이 가동 중이며, 농업용 로봇도 머지않아 일반화 될 전망
 - 동식물 자원을 활용한 새로운 의약품, 인공장기 개발 경쟁도 가속화
- 제2의 영토 전쟁
 - 해외 농지 확보를 위한 각국의 경쟁 심화로, 최근 4년간 세계 각국

이 국외에서 사들인 농지는 1980만 ha이며, 이는 우리나라 농지의 11배에 이릅니다.

- 종자·곡물 시장은 거대 자본의 각축장
 - 종자시장은 10대 메이저가 70% 이상, 곡물시장은 4대 메이저가 80% 이상을 차지하는 과점 상태
 - 곡물메이저인 카길과 종자메이저 몬산토가 소매업체 크로거와 전략적 제휴를 체결하는 등 주도권 선점을 위한 합종연횡 증가
- 농업은 ‘6차+a’산업입니다
 - 1차, 2차, 3차 산업에 융복합 산업까지 접목된 ‘6차+a’산업이며, 정보기술(IT), 바이오기술(BT), 녹색기술(GT), 문화기술(CT)이 결합되면 그 영역은 무한대로 늘어남.
- 농식품 시장은 ‘IT+자동차’보다 큼니다
 - 글로벌 농식품 시장 규모는 5조 8,000억 달러로 IT와 자동차 시장을 합한 것보다 크며, 특히 식품시장은 10년 후 50% 더 커질 전망

□ 영역에 갇힌 한국

- 한국은 시지프스 형벌을 받고 있습니다
 - 스스로 농업을 부의 원천으로 활용하겠다는 ‘발상의 전환’을 시도하지 않고, 변화와 개혁 없이 형벌로만 치부하지 않았는지 반성 필요
- 쇠농정책이 기업도 자본도 밀어냈습니다
 - 글로벌 경쟁력을 갖추지 못한 것은 농업인만의 잘못이 아니라 정책과 인식이 앞서가지 못했기 때문
- 한국 농업은 30년째 뒷걸음질 쳤습니다
 - 농업 무역수지, 65세 이상 고령화 비율, 도시대비 농가소득, 국내총생산(GDP) 비중, 농가 교역조건 등 5대 농업관련 지표가 계속 악화
- 정부지원 2위, 효율성은 96위입니다
 - 생산자지지추정치(PSE)는 OECD국가 중 2위이나, 세계경제포럼

(WEF) 선정 각국 농업정책 효율성 순위에선 세계 96위로 최하위

- '5대 성역'이 농업 발전 막고 있습니다
 - 쌀 맹신주의, 나눠먹기 보조금, 경자유전 원칙, 개혁없는 기관, 의존적 농민의식
- 불가침 성역은 누가 만들었습니까
 - 정치권과 정부, 농업 전문가 모두의 책임, 패배주의와 온정주의 때문
- 쌀이 남아도 벼농사만 고집합니다
 - 전체 농민의 71%, 농지의 53%가 쌀 생산에 투입되나, 전체 생산액 중 24% 수준, 시장이 아닌 정부 보조금을 상대로 농사
- 위기 때마다 보조금 늘렸습니다
 - 지난 17년간 무려 116조원의 보조금을 지급하였으나, 같은 기간 농가 부채는 3배 이상 증가, 농민들조차 보조금 정책 비판
- 경자유전 원칙이 영세농만 늘렸습니다
 - 경자유전 맹신 결과 불법 임대차 성행, 농지거래 부진, 규모의 경제 실패, 국토의 비효율적 활용 야기
 - 전체 농지의 43%가 임차농지로, 사실상 이미 깨진 경자유전 원칙
- 농업 관계자들 진정 농민 위해 일합니까
 - 성과없는 교육(농업계 교육기관), 따로 노는 R&D(농진청, 도단위 농업기술원, 시군단위 농업기술센터), 그들만의 농민단체(농협, 농민단체), 책상머리 행정(농식품부, aT, 농어촌공사)
- 수구적·의존적 농민의식 문제입니다
 - 가격보전 요구(프로의식 상실) → 부채탕감 기대(도덕적 해이) → 유행성 경작(근시안적 사고) → 개방반대 남의 타(배타적 풍토) → 보조금 악용 불공정 경쟁(가짜 농민)
- 미래를 위한 주춧돌도 허약합니다
 - 농업분야 R&D 규모는 몬산토보다도 적은 수준이며, 농업예산 중 40%가 보조금인 데 반해 인프라 투자는 19%

- 농대 졸업생 한 해 12,000명 중 농업 분야 진출은 5% 미만

□ **한국 농업의 가능성**

- 발상을 바꾸면 가능성은 무한합니다
 - 넓은 배후시장, 선진 산업기술, 수출 노하우, 인재 자본, 압축성장 경험 등의 희망, 패배의식과 현실 안주 배격
- 아시아 시장 우리의 안방입니다
 - 중국과 인도를 중심으로 한 아시아 중산층 급증(2년 내 5억 명 이상), 10년 후 전세계 시장의 40%인 2조 5,000억 달러 규모 전망
- 중국은 거대 농산물 수입국입니다
 - 중국 농산물 수입 급증('02년 161억 달러에서 '07년 480억 달러)
 - 상하이 까르푸 일반 채소 대비 유기농 채소 가격 7배 이상
- 작은 나라도 농업강국 될 수 있습니다
 - 네덜란드는 척박한 간척지에서 우리 농민 수의 1/7 만으로 세계 2위 농업 수출국가, 농산물 수출액은 우리나라의 18배, 덴마크·이스라엘도 세계적 농업강국
- 네덜란드는 보조금 없이 키웠습니다
 - 네덜란드 농업의 핵심은 농민의 기업가 정신
 - 농민이 주축이 되어 글로벌 시장 개척한 대형 품목조합, 국립대학과 연구소 민영화, 정부와 민간 합작 글로벌 식품 클러스터 푸드밸리
- 네덜란드 넘어설 수 있습니다
 - 파프리카 일본 시장점유율 네덜란드 제치고 1위(72%), 개방 후 한우 시장점유율 향상
- 성공의 싹 곳곳에 트고 있습니다
 - 햇사레 농산물 매출 540억 원(브랜드가치 954억 원), 장안농장 매출 115억 원 달성

□ 도약을 위한 계언

○ 첨단농업 富國의 길

- '6차+a'산업인 농업은 우리 경제의 새로운 돌파구가 될 수 있으며, 미래 경쟁력, 성역 타파, 글로벌화가 핵심

1) 미래 경쟁력

○ 서해안 간척지를 첨단 농산업 벨트로

- 새로운 간척지 12곳, 10년 내 3만 ha 확보 가능한 서해안에 첨단 농업·수출 농업의 전진기지로 서해안 간척지 벨트(시화-새만금-영산강 3대 농산업 특구) 조성
- 경제자유구역 수준 혜택 및 외국 농기업 유치

○ 새만금을 식품가공무역 메카로 만듭시다

- 가공무역 물류단지과 터미널, 기업형 수출농업단지, 국제농산물거래소, R&D·종자클러스터 등 아시아 수출 전진기지 구축

○ 도심 여유공간에 식물공장 해봅시다

- 생산성이 최대 100배, 유기농·친환경 등 고객 맞춤형 생산 가능
- 일본은 이미 초기 투자비 정부 지원정책 통해 수출산업으로 육성

○ 한강에 버티컬 팜 세웁시다

- 첨단농업의 가능성을 알리는 교육시설이자 한국 농업 혁신을 상징하는 랜드마크로 활용

○ 농업플랜트로 제2의 원전 신화 씹시다

- 농업·플랜트업계 협력 통해 바이오연료 플랜트·버티컬 팜 시장 개척

○ 우주농업 기술경쟁에 뛰어듭시다

- 우주농업은 관련 기술의 집약체이자 첨단 농법의 산실이 될 것
- 중국은 이미 4년 전 농업위성 발사, 미국·인도·러시아·일본도 참여

2) 성역 타파

○ 농진청과 서울대 농생대 합칩시다

- 네덜란드 첨단 농업의 산실인 와게닝겐UR처럼 R&D·교육의 메카로

○ 쌀 변동직불제 폐지합시다

- 변동직불금 파동(부당 수령자 2만 명), 변동직불 예산 5,300억 원 증액, 시장왜곡 초래
- 변동직불금부터 없애고, 농민 공동의 이익·미래를 위한 준비에 투자
- 농촌과 농민, 농업을 구분하고, 영세농 대책은 복지의 영역으로

○ 경자유전 원칙을 경자유전으로

- 이미 무너진 경자유전 원칙 삭제(농지법 개정), 농지임대차보호법 제정, 5년 이상 계약 의무화, 기업도 장기임차 허용 통해 농지 이용 규모화와 임차농 경영 안정 도모

○ 지역조합장 직선제 없애시다

- 금권 선거 판치는 지역조합 직선제 폐지, 전문경영인 영입
- 지역조합 통폐합 통해 대형화, 대형 품목조합 육성, 농협 신경분리, 지역조합 지원에 역점

○ 농업인도堂堂하게 소득세 냅시다

- 소득신고, 현황 파악 후 선택적 지원 통해 자긍심 고취 및 경쟁력 강화
- 낮은 소득세율 적용, 환급 혜택 증대로 경제적 피해 최소화, 농자재와 농업시설 투자에 대한 부가가치세 환급 확대

3) 글로벌화

○ 농업의 반도체, 종자 메이저 만듭시다

- 글로벌 종자 시장(700억 달러)은 메모리반도체(456억 달러)보다 규모 큰 시장
- 외환 위기 때 한국 5대 종자회사 중 4곳 외국에 매각, 세계 종자시장에서 한국 점유율 1% 수준

○ 수출 1조원 식품기업 10곳 키웁시다

- 태국 기업 '샤로엔 포크판드 푸드'의 농업 분야 매출만 6조원, 이 중 1/3은 수출입에 비해, 국내 최대 기업 CJ의 수출 비중은 6% 불과

○ 적극적 M&A로 규모를 키웁시다

- 글로벌 농식품 기업을 키우려면 적극적 인수합병 필요, 식품 뿐 아니라 주류, 곡물, 종자회사도 M&A 가능
- 네슬레는 25년간 200개, 프랑스 다농 81개 기업 인수

○ 주류, 국세청서 농식품부로 이관합시다

- 세계 20대 식품기업 중 6개가 주류회사
- 국세청은 주세 징수에 한정, 농식품부에 주류산업 성장 업무 일임

○ 곡물비축센터 만듭시다

- 2년 전 곡물파동 때 식품가격 급등은 주요곡물비축시스템 부재 탓
- 연간 수천억 원을 들여 미국 저장하는 예산으로 현물과 선물을 적절히 활용하여 국가 곡물비축센터 설립 검토

○ 북한 농업 '턴키 방식' 지원합시다

- 통일 대비 북한 농업 재건 계획 수립 시급, 비료 지원 뿐 아니라 종자와 재비기술, 농지기반 정리 등 농업 생산력 향상 노하우 지원 필요

○ 미래의 해법 농 첨단 수출산업으로 키웁시다

- 2,500년 전 고대 그리스를 대상으로 수출농업을 성공시킨 Agrigento처럼, One Asia를 무대로 진출하여 농업 성장신화 창조

□ 이런 제언도 있습니다

○ 新농업에 민간자본이 물리게 합시다

- 모태펀드 1조로 확대, 농업 벤처캐피탈 육성, 농업법인 상장, 농지유동화 사업, 대기업 자본 유치, 농업 FDI 확대

○ 대형 농업법인 100곳 키웁시다

- M&A 시 인센티브, 중소기업인 통폐합, 대기업 참여 유도, 부실법인 즉시 퇴출 등을 통해 매출 1천억 100곳 집중 육성

○ 남아도는 쌀, 수출로 물꼬 튼시다

- 수출단가 규정, 까다로운 수출 승인, 관세화 유예국가 신분 등으로 수출에 제약 존재
- 수출규정 합리적 개선, 면류·주류용 소비 확대, 타작물 전환 유도, 등급제도 조기 시행 등을 통해 적극적인 수요 증가와 생산 감소 필요

○ 수입쌀 조기 관세화 합의합시다

- 의무수입물량 33만 톤에서 41만 톤으로 증가, 관세화 통해 국내외 쌀값차이 축소로 수입량 8만 톤 감소(2015년), 연 1,000억 원 외화 절약 가능

○ 베이비붐 세대 겨냥 귀농지원센터 만듭시다

- 베이비붐 세대 712만 명, 청년실업자 35만 명 등 귀농잠재인구 급증
- 현행 시군구와 농협이 각자 운영하는 귀농귀촌센터를 국가 귀농지원센터로 통합, 농지알선, 기술교육, 원자재 공급, 컨설팅 기능 제공

○ 유기농의 '루이비통' 우리가 만듭시다

- 세계 유기농지 10년새 3배 증가, 세계 유기농시장 520억 달러, 연간 20% 성장
- 국가마다 유기농 기준이 다르므로, 국내 유기농 기준 최상위 상향 통해 Korean Organic의 명품 농산물화, 국가브랜드 제고 가능

○ 글로벌 곡물유통기업 키웁시다

- 미쓰비시·이토추 등과 젠노그레인이 일본 유통량의 70% 점유한 반면, 우리나라는 곡물 구매 60%를 4대 메이저에 의존
- 곡물·축산메이저와 사업 제휴, 해외기업과 공동투자, 동남아시아 곡물 시장 공략 등의 적극적 육성전략 필요

○ 글로벌 입맛지도 DB 구축합시다

- 국가별 선호 식재료 및 좋아하는 음식 집대성, 수출업체를 위한 원

스톱 데이터베이스 구축

- 한국판 '와규' 국가대표 식자재 키웁시다
 - 세계적 셰프 피에르 가니에르“갯잎, 도라지 등 한국 식자재 세계서 통할 것”
 - 日 와규는 지속적 품종 개량과 '육류의 캐비어'로 영양성 부각, 美·유럽 고급 레스토랑 사용 등 아시아권 '와규 열풍', 글로벌 종자산업으로 성장하여 세계 각지에서 사육
- 고추장을 세계적인 소스로 만듭시다
 - 타바스코 소스는 160개국 진출·연간 2.5억 달러 판매에 비해 고추장은 기업간 과열 경쟁과 제각각인 매운맛 등급으로 세계화 부진
 - 그러나 세계 매운소스 시장 급성장, 해외 고급 레스토랑도 이용, 국제적인 웰빙 트렌드, 최고 수준 국내 발효기술 등 4대 잠재력 보유
- 지식농업 국가 DB부터 만듭시다
 - 생명자원 데이터, 농업 베스트 프랙티스, 가격 동향·작황 예상, 농지 매매·임차 정보, R&D·연구 보고서 공유 통해 지식기반 농업
- 新농업기술 네트워크 구축합시다
 - 롯데·인성테크·전라북도·농진청 등 식물공장 개발을 개별적으로 추진
 - 정부·기업·지자체·연구소·학계가 신기술에 대한 정보공유·인력교류·공동포럼·공동구매 등 협력체계 구축을 통해, 산발적 노력을 국가적 역량으로 통합
- 식품안전청 새로 만듭시다
 - 현재 농산·수산·동식물 안전 담당 국립수산물품질검사원, 국립수의과학검역원, 국립식물검역원,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과, 식품안전 담당 식품의약품안전청을 통합하여 식품안전청으로 개편, 업무 중복·혼선 및 사각지대 해결
- 1農-1社 농기업 멘토링 추진합시다

- 농업법인과 일반기업의 1대1 매칭업 통해 기업의 사회적 책임 농업에서 실천 가능

- 우리 농업 氣살리기 캠페인 합시다
 - 일본의 食育 기본법 제정 및 자국 농산물 소비 유도, 미국의 민간 Farm Aid 운동 및 미셸 오바마의 '키친가든'캠페인 등
 - 우리 농산물 마일리지 제도, 초중고에 우리 농산물 교육프로그램, 농활 다시 붐업, 수학여행 농촌으로, 기업 CSR, 농업으로 저변 확대 등을 통해 우리 농산물의 가치에 대한 아이들의 인식 제고

*자료작성: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미래정책연구실